

# 백화점은 벌써 봄... 새단장 바쁘다

### 롯데·신세계·현대백 매장개편 단독브랜드 유치경쟁 치열

설 연휴가 지나고 지역 백화점업체가 봄 손님 맞이 위한 매장개편(MD)에 나섰다.

특히 올 봄에는 직매입 및 편집매장서 NPB(단독 브랜드)를 늘리는 등 매장개편(MD)을 차별화하고 여러시즌동안 인기를 끌고 있는 SPA(제조·유통 일괄화 의류) 브랜드 강화와 통한 각 백화점의 특성살리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8일 지역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잡화매장의 장신잡화 2개 브랜드가 퇴장하고 '헤리메이슨', '아카타'가 입점한다.

여성복은 구두·핸드백·캐릭터캐주얼·영트렌드 캐주얼 등 총 6개 브랜드가 새 단장 중이다. 남성복도 스포츠·이저·골프 총 6개 브랜드가 캐주얼 브랜드 '캘빈'을 남성복 매장에 새롭게 선보일 계획이다.

'캘빈'은 여성복으로 유명한 '미샤'에서 런칭한 남성 브랜드로 여성복에서 쌓은 노하우를 남성복에 표현해 롯데와 손잡고 올 봄 유통업체 최초로 광주점과 포항점 등 총 4개 점포에 오픈한다.

광주신세계백화점은 1층광장에 새봄 유행을 주도할 3가지 컨셉의 의상연출을 통해 고객들에게 올 봄



영캐주얼 매장서 고객이 화려한 컬러의 옷들을 고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품>

패션을 제안한다.

전시컨셉은 ▲섬세하고 세밀한 새로운 트렌드패션 ▲플라워 패턴과 화려한 컬러감의 70년대중 레트로 스타일 ▲비비드한 컬러감과 크리시픽한 코튼소재를 매치한 캐주얼 슈트 스타일링이다.

이와 함께 1층광장 중앙통로와 2층에 형형색색의 꽃과 핑크, 연두빛 컬러로 벽면채색을 하고 나비도빌 등을 전시해 봄의 생동감 넘치는 정원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들의 쾌적한 쇼핑환경을 위해 각 브랜드내 피팅실을 개선해 고객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 선호도가 높은 신규브랜드 입점과 새단장 오픈을 통해 좀 더 다양한 브랜드도 선보인다. 남성 7층에는 유행풍 남성 캐주얼 '타이포맨'이 신규오픈하고 패션스트리트에는 젊은층에게 인기 있는 아디다스스포츠가 새단장 오픈한다.

현대백화점 광주점도 올 봄 개편 때 지난해 입점한 '마이클 코어스'와 '코치'의 명품매장 확대에 이어 중저가대 상품으로 젊은층을 겨냥할 수 있는 '시슬리' 핸드백 전문매

장 입점과 '메트로 시티' 영업매장 확대를 통한 매출 상승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현대백화점 광주점은 2월말까지 총 15개 브랜드를 신규입점하고 매장 전시 및 상품 컬러를 봄에 맞는 화사한 컬러로 교체하는 등 봄 고객 맞이에 나서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김윤중 영업총괄팀장은 "백화점마다 수입브랜드, 자주편집매장 등을 앞세워 단독 브랜드를 유치하려는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우유가 부족해서...” TV·라디오 광고 중단

### 구제역 살처분 늘면서 개학후 공급부족 심각

TV와 라디오에서 우유광고가 사라졌다. 구제역으로 살처분 된 젖소 두수가 늘면서 원유공급량이 급감하자 우유업체들이 수요에 공급을 맞추지 못해 광고를 중단한 것이다.

8일 우유업계에 따르면 서울우유를 비롯해 남양유업, 매일유업 등 우유업체들은 구제역이 계속 확산할 경우 초등학교 봄 방학이 끝나는 3월 초 우유 공급부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젖소 살처분으로 원유 공급량이 10%가량 줄어든 상황에서 3월 초 초등학교가 개학하며 급식을 시작하면 우유 수요는 1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구제역 확산이 계속될 경우 원유공급량은 갈수록 감소해 우유 성수기인 5월에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를 것으로 우유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유업체들은 우유 광고 중단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내 최대 우유생산업체인 서울

우유는 축구선수 차두리를 모델로 기용한 광고를 1월 말까지 방영했으나 계약 만료 이후 추가로 광고를 내보내지 않고 있다.

남양유업도 구제역이 발생하자 지난해 11월 광고를 중단했다. '피겨요정' 김연아를 모델로 한 매일유업의 광고도 지난해 8월 종료된 이후 다시 볼 수 없게 됐다.

우유업체들은 광고 중단 외에도 우유 신제품 출시를 늘 수 있으면 자체하고 커피전문점 등에 납품하는 원료형 우유와 제과·제빙업체에 제공하는 탈지분유 공급량을 축소하는 등 원유 공급부족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 생산재 가격지수 2년래 최고 제품 가격조정 압력 거세질 듯

공산품의 원가부담을 나타내는 지표가 2년 만에 최고치로 나타나 제품 가격 조정 압력이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재 가격 지수는 지난해 12월 전년 동월 대비 10.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8년 12월의 12.7% 이후 2년 만에 첫 두자릿수 상승률로 기록됐다.

생산재란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데

쓰이는 원재료와 중간재를 말한다. 생산재 가격이 오를수록 최종 생산품의 가격도 상당 조정 압력을 받게 된다.

생산재 가격이 많이 오른 데는 국내 요인보다 해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 요인에서 비롯한 생산재 가격 상승률은 14.8%로 국내 요인에 따른 상승률 7.1%의 배를 웃돌았다.

해외 요인 가운데 연료·동력 23.0%, 제조용 재료 14.9%, 건설용 재

료 5.2%의 상승률을 각각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가공식품 등을 만들려고 들어오는 농산물 가격이 32.5%, 의류 등을 만들려고 들어오는 섬유 가격이 39.9% 올라 약 2년 만에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 밖에 1차 비철금속제품(21.3%), 1차 철강제품(19.5%), 석유제품(18.8%), 연료광물(16.0%), 화학제품(12.3%) 등 주요 생산재 가격도 두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한은 관계자는 “생산재 가격은 인플레이션의 선형 지표로서 올해 1분기 상품과 서비스 가격에 대한 인상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처럼 가격 조정 압박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물가안정 목표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어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는 얘기도 있다. /연합뉴스

## 光銀 ‘더블찬스정기예금 55호’ 한시 판매

## 신용등급 최하위 사채시장 내몰린다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오는 21일까지 KOSPI 200 지수에 연계한 ‘더블찬스정기예금 55호’를 한시 판매한다.



이번 출시 상품은 1년 정기예금으로 KOSPI 200지수의 상승(하락)률에 따라 최저 0%(원금보장)에서 최고 연 15.7%를 제공하고 기준이자 결정일부터 만기까지 결정일까지 기준이자가 장중 1회라도 25% 초과 상승 할 경우 연 4.5%, 20% 초과 하락하는 경우에는 연 0.0%로 수익이 확정되는 너-아웃(Knock-out)형 예금상품이다.

한편 광주은행의 대표 ELD상품인 더블찬스정기예금은 최근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꾸준한 가입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649억원이 판매되는 등 고객들로 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신용등급 최하위인 10등급자는 제도권 금융기관 중 최후의 보루인 대부업체조차 이용할 수 없어 사채 등 사금융시장으로 내몰리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신용대출 전년 대비 대부업체 8곳의 대출승인율을 조사한 결과, 23만8609명의 대출 신청자 가운데 60만2151명이 대출을 받아 평균 25.6%의 승인율을 보였다고 8일 밝혔다.

등급별로는 2등급자가 신청자 4만 6727명 중 2만1188명이 대출을 받아 45.3%로 가장 높은 승인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1등급자 44.2%, 3등급자 43.6%, 4등급자 34.3%, 5등급자 32.

8%의 승인율을 나타냈다.

특히 10등급자는 11만6439명의 신청자 가운데 6449명만이 대출을 받아 승인율이 5.5%에 불과했다.

10등급자나 신용거래 실적이 없어 신용등급이 없는 무등급자는 급전이 필요해 고금리를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업체에서도 사실상 상 쫓겨나고 있다는 뜻이다.

승인건수 기준 대부업체 이용자는 7등급자 13만844명(21.7%), 8등급자 12만7918명(21.2%), 6등급자 8만5271명(14.2%) 순으로 많았다. 10등급자는 6449명으로 1.1%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 “첨단자이 2차를 잡아라” 546가구 공급

GS건설이 최근 광주 R&D(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첨단2지구 인근에 첨단자이2차 546가구를 공급한다.

GS건설은 8일 광주시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에 첨단자이2차 아파트 546가구를 오는 3월경 분양한다고 밝혔다.

첨단자이2차는 공급면적 114㎡

(전용면적 84㎡·34평) 468가구와 116㎡(전용면적 84㎡·35평) 78가구로 구성돼 있다. <투시도>

이 아파트는 현재 조성 중인 첨단산단 2단계 배후단지, 첨단산단이 최근 지정된 광주 R&D특구 중심지여서 투자 가치가 높다. 또 오는 12월 빛고을로가 연장·개통될



예정이며서 상무지구·수완지구 등 도심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다. 모델하우스는 광주시 서구 광천동 이마트 옆에 마련돼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고품격 아파트를 지향하는 첨단자이1차에 이어 오는 3월경 2차 분양에 나선 예정”이라며 “최근 광주 R&D특구 지정과 연내 빛고을로가 개통되면 투자가치와 접근성이 크게 향상돼 분양이 활기를 띠는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분양 문의는 062-368-2020.

한편 GS건설이 분양한 첨단자이1차(594가구)는 분양이 거의 완료됐다. 현재 공급면적 165㎡(전용면적 137㎡·49평)형과 공급면적 193㎡(전용면적 164㎡·58평)형 일부만 남아있다. /박정욱기자 jwpark@

## 지붕개량 금속칼라강판

단 한번 시공으로 평생지붕 걱정 끝!

‘슬레이트 지붕’ 애물단지 전남주택 ‘석면공포’

공정 직영 | 공사 직거래 | 주택 개·보수 | 인테리어 | APT, 주택 리모델링 | 협력업체 및 영업사원 구함

최신형 신개발품 대농속칼라강판은 다릅니다.

- 한번 시공으로 수명이 반 영구적이며, A/S가 신속합니다.
- 정부인정 100% KS제품만을 사용합니다.
- 공정직영이므로 고객이 원하는 크기와 색상을 맞추어 드립니다.

단 하루면 시공완료 | 주택, 지붕, 창고 | 공장, 헬스, 덕트

대농산업 | 본사 및 공장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동 530번지

062-373-6548 · 6549 | 010-8608-6548

## 관광호텔 예술의 전당

GRAND OPEN 기념!

객실(1박)+조식뷔페2인 포함 (양식, 한식 20가지)

50% 할인된 가격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층별 시설안내

- 5F 벨라지오홀(웨딩홀) 카네기홀(연회장)
- 4F 객실, 신부대기실
- 3F 객실
- 2F 객실, 윌트니스센터
- 1F 프론트, 커피숍, 비즈니스센터, 회의실, 연회상당실
- BF1 대연회장, 페백실

\*비즈니스맨을 위한 전문호텔 \*전객실 인터넷 사용

객실예약 | (062) 600-9999 | 예식연회예약 | (062) 362-0011, 0022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61번지(상무지구 플렉서 옆) | www.hotelarthall.co.kr